



한강변 서남향의 서울지하철 당산역에서 걸어 5분 거리에 댄스스포츠 서울특별시연맹(회장 김숙희)의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이 있다. 영등포 당산로 삼성타운빌딩 6층에 자리 잡은 이 댄스스포츠 교실에서 지난 5월 14일 월레 파티가 열렸다.

토요일이지만 석가탄신일이 겹친 빨간색 공휴일이라 교습은 없다. 댄스스포츠 파티는 대신 평소보다 1시간 반 이른 오후 3시에 시작하고 6시를 넘겨 파장했다.

계절의 여왕 5월 중순, 신록에 꽃구경 인파가 도회지를 대거 빠져나가는 시절인데도 댄스파티에 성인 남녀 70여 명이 몰려와 늦봄 하오의 역동적 낭만을 즐겼다. 디스크자카로 나선 노익장의 댄스마스터가 엄선한 스탠더드(모던)와 라틴 댄스곡이 3시간여 한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율동과 스포츠, 음악의 3박자가 화음을 이룬 댄스 열기가 이어졌다.

호텔급 볼룸에 가까운 인테리어로 정평이 난 이곳은 박호 한국프로댄스평의회장의 개인 클럽이자 교류 공간이기도 하다.

댄스스포츠를 10~20여 년 익히며 즐긴다는 중장년 동호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파티장 벽면에 걸린 이벤트 명칭은 '댄스스포츠 마니아 힐링 파티'. 라틴 댄스 5종목 가운데 투우사와 황소의 대결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파소도블레는 한 곡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댄스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드물게 교습하지만 파소도블레는 아직도 선수들의 공연경기용 댄스 종목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스탠더드 댄스는 이런 파티에서 왈츠, 탱고, 폭스트롯 순서로 빈도가 높게 등장한다. 슬로 왈츠의 2배 속도인 빈 왈츠는 세 차례 나오고 이름부터 쾌속을 상징하는 퀵스텝(Quick Step)은 두 번만 등장했다.

퀵스 테پ

쾌속 진행돼 스포츠 효과 최강
흥겹게 취야 스타일 살아나는 '환희의 춤'

퀵스텝은 경쾌한 워킹 차원을 넘어 거의 뽀박질하거나 내달려 운동 효과가 큰 댄스다. 남녀 커플이 무도장 코너에서 손을 맞잡아 함께 돌기도 하고 발끝을 바닥에 교대로 찍는 피겨 동작 등도 특징이다.

글 채삼석 · 사진 한국프로댄스평의회 제공

이번엔 퀵스텝 댄스스포츠를 함께 탐색해본다.

세계 정상급의 퀵스텝 무대를 우선 간접 체험하고 싶은가? 2016 프로페셔널 디비전 유럽 스탠더드 댄스스포츠 챔피언십 결승전 실황을 인터넷 유튜브에서 찾으면 된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인구 3만3천 명의 해안관광도시 캄브릴스에서 최근 개최한 댄스배틀의 현장 녹화 영상이다.

우승팀은 퀵스텝 종목에서 발군의 기예를 발휘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 덴마크 국가대표인 에마누엘 발레라-타니아 켈렛 커플이 시상대 중앙에 올라 관중석 팬덤의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덴마크 국가가 연주된다. 황금빛 에로티시즘의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작 '키스'의 문양을 연상시키는 우승트로피도 인상적이다. 시상식 후 켈렛-발레라 커플은 명예로운 앙코르 댄스(Dance of Honour) 무대에서 역시 탁월한 퀵스텝으로 피날레를 수놓았다.

댄스에서는 어느 종목이든 두 발로 바로고 아름답게 걷는 워킹이 기본이다. 퀵스텝은 워킹을 넘어 거의 뿔박질하거나 내달리기도 하는 춤이다. 손을 맞잡은 커플이 함께 돌고 발끝을 바닥에

교대로 찍어대기도 한다. 딱따구리가 나무 등지에 수직으로 올라 앉아 부리로 '쿵쿵' 찍어 구멍을 파는 장면까지 연상하면서 배우고 즐겨야 한다. 라틴댄스 차차차처럼 경쾌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동한 스케이팅 왈츠보다 더 빠르다.

퀵스텝의 템포는 1분당 50~52소절 속도로 연주된다. 흥겹게 춤춰야 제대로 맛과 멋이 나는 환희의 댄스다.

퀵스텝의 기본 루틴은 퀴터 턴, 샤페(Chasse), 록 스텝, 아웃사이드 체인지, 스피너 턴, 내추럴 턴 등으로 진행된다. '슬로 퀵 퀵' 쓰리 스텝이 기초다. 시합용 루틴은 스텝 홉, 런, 리프, 펜듈럼, 라닝 피니시, 샤페 록 등으로 구성한다.

슬로 왈츠나 폭스트롯이 '다뉴브 강의 잔물결'처럼 평화롭고 우아한 댄스라면 퀵스텝은 남녀 커플이 격류를 타고 래프팅 하거나 질풍처럼 내닫고 노도를 헤쳐 가며 발맞춰 진행되는 스포츠 이미지가 뚜렷하다. 그만큼 체육활동의 효과도 크다. 퀵스텝 댄스스포츠의 경연장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보면 말 그대로 '물 찬 제비 한 쌍'이 비상하기 직전 모습이 때때로 연상될 것이다.

물론 무도장 전체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공전하고 수시로 자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왈츠, 탱고, 폭스트롯 등 다른 모던 댄스와 비슷하다. 다만 가장 빠르게 달리면서 코너나 중앙에 종종 머물러 '쿵쿵' 찍는 동작 등이 유별나다.

우리 한국인들은 파티 문화에 대체로 서툴다고 한다. 역대 정권이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국제화, 세계화를 거의 대선 테마 공약으로 띄우거나 국정사업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달한다는 얘기가.

왜 그럴까.

5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박호 댄스교실에서 열린 파티 현장도 역시 이런 문화 수준의 현장 사례다. 이곳에서 교습 받는 중상급 댄스동호인조차도 일부만이 실제 파티에 나온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함께 배운 남녀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춤추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개방성을 표방하지만 배타적 측면이 다소 강한 우리 생활문화와 댄스에 대한 일부 편견 등 때문일 것이다.

무도회장에 커플로 입장할 경우 처음과 마지막 음악에는 동반한 파트너와 반드시 함께 발맞춰 춤춰야 바람직한 매너다. 그러나 그 밖의 시간 대부분은 부부나 연인, 선수 커플이라도 '체인징 파트너'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례다.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국내의 챔피언십 대회가 아니라면 고정 커플이든, 싱글이든, 춤 실력 차이가 다소 나는 상대든 상관없이 매너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배려 속에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댄스스포츠는 무도인이 몸으로 쓰는 시(詩)라고도 말한다. 또 파트너와 말없이 손잡고 산보하며 교감하는 대화의 성격이 강하다. 멤버십 클럽이 아니라면 공개된 파티는 문턱이 더욱 낮고 문호가 더 넓어야 한다. 그래야 댄스스포츠 시장도 확장하면서 더욱 정상화될 것이다.

댄스스포츠 클럽의 수준이 댄스파티의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사와 기업인 등 부부를 주축으로 1995년 출범한 '파라 클럽'은 여전히 활동이 왕성하다고 한다. 일요일 저녁마다 멤버스 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연3회 정기무도회, 격년제 파라컵 댄스스포츠 경기대회를 주최한다. 수시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축구 열기 속에서 탄생한 '뽀에스타 클럽'(나중에 '하이폴 클럽'으로 개명) 등은 정기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호 댄스교실의 월례파티를 100회 연속 주관했다는 이 클럽 출신 댄스마니아들이 5월 석가탄신일 댄스파티 현장에는 10명 정도 출입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댄스스포츠 인구도 상당수 줄었다고 한다. 국민적 비탄을 부른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년이 지나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됐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댄스문화의 정상적인 발전, 부흥을 기원해본다. ⑦

퀵스텝

